오리지널 순교!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일

(히12:3~13)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리지널 순교!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리지널 순교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저께 월요일자 중앙일보에 1면 기사로 헤드라인이 뭐였냐 하면요,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286명,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희생자들의 영정을 조그맣게 바둑판처럼 사진을 실어놓고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부제가 뭐냐 하면, '관피아 개혁부진, 생활안전 미흡'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전히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뜻으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걸 외치는 그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절망스러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전달되니까 제가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많은 시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공산주의혁명 아닙니까?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요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녹색운동, 아니면 여성해방운동, 지금 있는 세상을 개선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과 연관 지어서.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서 문제를 느끼고, 그리고 그 문제를 느낄 때 그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만 바꾸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혁명부터 계속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마다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맞게 규격이 맞춰져서 냉장고가 만들어지는데, 한 10년 쓰다보면 냉장고가 낡아지니까 새로운 냉장고로 바꾸게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볼펜 쓰다가 볼펜 잉크가 다 닳아지면 집어던지고 새 볼펜을 손에 쥐고 쓰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삼성 것 쓰다가 오래 돼서 바꿀 때, 이번에는 한 번 LG 것 써봐야 되겠다, 삼성 모니터를 LG 모니터로 바꾸는 것,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냐 이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물건 바꾸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잘못된 문제를 내가 포착하고 느끼고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개선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만이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 전체를 통째로 다른 세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그것은 무슨 개혁이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순교에요, 오리지널 순교.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 순교가 가능한 것은 이전에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오리지널 순교가 있었기 때

문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 순교가 뭐냐 하면, 세상을 바꿔서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속돼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순교입니다.
오리지널 순교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림자적 순교가 사전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순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박해와 압박을 물리치고 목숨을 바치는 일, 이게 사전적인 정의 아닙니까?
이 사전적인 정의의 순교가 일어나는 것은 오리지널 순교의 그림자라 이거에요.
오리지널 순교가 없는 상태,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더 살고 싶고 세상에 애착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살해당하는 것이지 순교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순교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림자 순교가 이루어질 때에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개의 세상, 내가 새롭게 바꾸어야 될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이 두 개의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감각에 주어져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5감각으로 접촉이 가능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니까 막연하지만, 내 가정,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정,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직장,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그것을 중앙일보 월요일자 신문에서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은 월드컵으로 또 난리입니다.
월드컵,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 현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총리후보자의 역사의식이 문제가 돼서 또 난리잖아요, 이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똑같아요.
나는 가정을 살 것이고, 직장을 살 것이고, 총리후보자의 역사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 것이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어떻게 다른 세상이냐?
먼저의 세상은 내 눈앞에 펼쳐있고 내가 느끼는 세상이고 바꿔야 할 세상은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판단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이 세상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그 세상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한 순교는 진짜 이 육체가 죽게 되는 그림자 순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신앙의 정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순교의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느끼고 판단하시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세상 바꿔치기, 오리지널한 순교, 기존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리지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순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순교한 상태에서 살다가 순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전적인 정의의 순교는 이미 죽은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11장 3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꿔치기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일부분, 내 가정과 가족이 들어와 있고 직장이 들어와 있고 내 나라, 월드컵을 할 때는 대한민국 축구팀이 들어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하나님이 느끼시고 판단하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것들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다 십

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좋아해서 담고 있는 세상 것들, 아내나 남편 자녀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짜 생명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할 때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이 찢기십니다.
무거운 것들이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 자꾸 5감각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에 내 마음이 끌려가려고 그럴 때 찢기신 몸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육체의 5감관을 통해 접하는 것들로부터 찢겨 나와 자유롭게 되면서 성령님께 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어차피 통째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실 때 나쁘다고 판단하실 수 있고, 내가 느끼는 세상에서 나는 이것이 희망이다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개혁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바꿔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통째로 바꿔서, 도대체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모니터 바꾸듯이 볼펜 바꾸듯이 냉장고 바꾸듯이 세상을 통째로 바꾸세요.
이게 오리지널 순교입니다, 오리지널 순교.

그러면 본문이 어떻기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의 흐름상 잘 눈에 띠지는 않는데 아주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그리고 로마정부로부터의 박해가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고 피부에 닿게 되는 상황에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신자들이 흔들립니다, '과연 예수님만을 믿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냐?'
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만을 바라보자!'라는 취지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역설해나가고 있는 중에,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젠 망했구나!'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주저앉는 상태인데, '이렇게 너희가

박해에 직면해서 힘이 빠지지 말고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일이 너희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말도 안 돼는 취급을 당하셨다, 박해나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죄인들로부터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억울하게 박해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맞고 찢기시고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밖의 죄인들이 박해하는 이 현실은 참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순교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고 있지 않은 거다' 순교의 자리까지 도달한 것도 아닌데 벌써 주저앉아버리면 어떡하느냐? 스테반 집사님처럼 순교하고, 이미 순교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지금 주어지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바뀐 겁니까?
앞에는, 죄인들이 무지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아직 가지 않았느냐' 하고 순교의 얘기를 꺼내고 나서부터 순교의 지점으로부터 이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 보게 되면서 얘기가 바뀌어버리고, '이 박해는 죄인들이 나를 억울하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내리시는 징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얘기 흐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박해와 징계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가 박해고 어디까지가 징계입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 장로가 칼로 목 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박해입니까, 징계입니까?
앞에서는 박해를 참으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박해가 징계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뀝니까?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부터 완전히 얘기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게 내리시는 징계의 경계가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대해 죽어버리고, 그건 낡은 냉장고를 치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냉장고가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냉장고에 대해서 죽는 거죠,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서 이 세상과 연관된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빼내버립니다.

가족까지 다 빼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몸까지 다 빼버립니다.
이게 순교에요, 이게 오리지널한 순교라는 얘깁니다.
이 오리지널한 순교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박해가 주어질 때는 그건 박해가 맞아요.
원수들의 박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해받는 사람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아직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워 떠는가 하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자기가 느끼는 세상을 껴안고 있습니다.
가정을 껴안고 있고, 재산을 껴안고 있고,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려면 세상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머리카락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다 빼냅니까?
그러니까 죽자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노라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동안에.
근데 바라봄이 끝나면 다시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음으로써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들어온 이 상태가 오리지널한 순교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 상태가 안 되고 있으면 박해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은 완전히 세상이 빠져나간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어진 것은 박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림자 순교죠, 오리지널 순교에 이어서 나타나는 그림자 순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박해가 주어지면 우린 벌벌 떱니다.
천사의 얼굴로 우리를 박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박해가 주어진다는 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바로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마음에서 빼라는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징계가 되는 겁니다.
왜 징계를 주십니까?
마음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내가 접촉하면서, 내가 느끼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을 때에, 박해가 주어지면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잃

을까봐.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아버지의 징계로.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빼내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두렵나?
뭔가 내 마음에서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내게 다가오는 이유는 징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분명한 의도는 무엇이냐?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이 보여 졌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목소리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신 이방민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환상이 보이고 예언적으로 알게 됐을 때 정말로 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징계의 효과입니다.
순교의 자리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리지널 순교가 뭐라고 했지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와서 온몸이 진동하면서 떨 정도로 무섭고, 간담이

쪼그라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었고, 그 붙들고 있는 세상을 빼앗길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네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을 내가 다 뿌리째 뽑아서 갖고 갈 것이다'라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무서워 떨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세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버리면서, 갑자기 그렇게 무서워 떨던 사람이 '내게 아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이면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상태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여호와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순교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박해와 핍박을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오리지널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리지널 순교의 자리로 이끌려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내가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는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신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 오리지널 순교가 이루어집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겨 죽으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면 세상이 통째로 바꾸어지고, 오리지널 순교가 일어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을 통째로 바꿔서 사는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주시오니 이 아버지의 징계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 능히

받아들이고, 그 징계의 의도가 온전히 내게서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